

# 포천시 觀光휴양도시개발 프로젝트

## 롯데관광개발(주) 3조8천억원 규모 사업계획 提案

롯데관광개발(주)가 포천시와 지난 3월27일 도시개발 및 관광레저 개발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준비해 왔던 사업계획을 발표해 포천시가 관광휴양도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11월24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고회에서 롯데관광개발(주)는 총사업비 3조8천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산정호수종합리조트, 백운계곡 관광지확대개발, 고급주택단지, 골프장, 스키장, 온천시설, 기타 기반 시설 등을 개발·설치한다는 내용의 포천시 관광휴양도시개발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각 항목별 개발 계획을 보면 산정호수종합리조트는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일원에 휴양오락시설, 놀이시설, 호텔, 유스호스텔, 콘도, 테마파크, 모노레일, 케이블카 등을 설치한다는 것이다. 또 백운계곡관광지는 포천시 이동면 도평리 일원에 콘도미니엄, 펜션, 상가, 관광등을 조성한다.

고급주택단지는 포천시 일동면 사지리 일원에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고 골프장은 포천시 이동면 화대리, 사지리 일원에 108홀 규모의 골프코스 및 클럽하우스, 관리동, 도로, 배수지, 오수처리장 등을 조성한다.



11월24일 포천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고회에서 롯데관광개발(주)는 총사업비 3조8천억 규모의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스키장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일원에 스키슬로프 14면과 호텔, 콘도미니엄, 운동 및 오락시설, 상가 등을 조성하고 온천시설로는 포천시 이동면 화대리 일원에 온천휴양 시설, 호텔, 콘도미니엄, 운동 및 오락시설, 상가 등을 조성하고 이동면과 일동면, 영북면 일원에 총연장 21.94km의 도로를 확장(5개소) 또는 신설(1개소) 하고 램프 1곳도 새롭게 설치할 계획을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주)는 이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국내외에 있는 회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번 프로젝트에 공동 참여한다고 밝혔다.

롯데관광개발(주)는 또 경기도제 2청사를 거쳐 내년 1월15일까지 행정자치부에 관광휴양도시 발전종합계획을 제출하고 3월 말에 포천시 시에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제안서를 제출한 뒤, 2월 중에 포천시와 <관광휴양도시 개발 추진 합의각서 (M.O.A)>를 교환한 다는 계획이다.

또 2007년까지 발전종합계획 승인, 민간투자법에 의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행사 설립 등을 마치고 2008년 상반기 중에 개발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가산초 초빙교장 공모

경기도교육청은 포천 가산초등학교 초빙교장을 공모하기로 했다. 응모자격은 초·중등학교 교장자격증을 갖고 있는 교원으로 12월14일까지 해당 학교에 희망원서와 학교 경영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도교육청은 해당 학교별로 교장심사위원회나 별도 위원회를 통해 1차 심사하고 도교육청에서 2차 심사를 벌인 뒤 초빙교장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29일, 일반음식점 위생교육

한국음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포천시지부(지부장 정해균)는 29일 포천반월아트홀 대극장에서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법 등의 내용으로 일반음식점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각종 규제 완화 차원에서 1999년 12월 29일자로 폐지됐던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이 2004년 1월 20일 개정된 '식품위생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활된 데 따른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들은 한국음식업중앙회 산하 지회, 지부에서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년 3시간씩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20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며 교육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폐기물 불법처리 방지 다짐

## 재활용품 수집상 환경교육

포천시는 최근 포천하수종말처리장 내 환경교육장에서 미신고 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폐기물관리법 등 환경관리기준 및 준수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이날 미신고 대상 재활용품 수집상 51명에게 할 사항과 관리기준, 폐기물 수집·운반·보관·처리 등의 내용이 담긴 폐기물

관리법, 입시 시 검토해 할 내용 등을, 사례를 중심으로 상세하게 설명했다.

2000년7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지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 재질의 포장재 등 용기류)만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용품 수집상의 경우 사실상 신고절차 없이 영업이 가능하다.

이날 재활용품 수집상들은, 교육받은 내용을 잘 지켜 일부 무분별한 입지와 폐기물 불법처리 등으로 굳어진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나 자고 다짐했다.

시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재활용품 수집상들이 재활용의 주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다시는 전쟁 없어야’ 기원

### 일동면, 청소년 안보 교육 실시

포천시 일동면 청소년지도위원회(위원장 이종환)는 최근 강원도 철원군 일원에서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일동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학생들은 이날 고석정, 노동당사, 백마고지 등 전쟁 유적을 견학했으며 특히 백마기념관에서는 관할부대 장병의 심도 있는 설명을 경청했다.

전쟁의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 현

장을 둘러본 학생들은 교과서로만 접하던 전쟁의 비참함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슴깊이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일동면 청소년위원회는 앞으로 또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벌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일동면 청소년지도위원회는 최근 강원도 철원군 일원에서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 일동중학교 학생 25명을 대상으로 현장 안보교육을 실시했다.

## 포천시, 식품접객업소 일제단속

포천시가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11월15일부터 약 1개월간 관내 유흥·단란주점과 호프·소주방형태의 일반음식점, 여종사원을 고용한 다방형태 휴게음식점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포천시는 이 기간 중 >고의적으로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유흥기반이 경과된 제품을 손님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해 발생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계도 조치하고, 그 위반내용이 고의적이거나 시민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다.

시는 또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의 이행여부를 재차 확인하는 등 철저한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시청 위생감사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사원, 경찰, 관련단체 회원 등이 함께 나선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세무민원 상담관제’ 운영

## 포천시, 고객감동 위해 11월30일부터 실시

포천시가 납세편의사책의 일환으로 고객감동을 위한 ‘세무민원 상담관제’를 11월 30일부터 운영한다.

그간 납세자가 세정민원실을 방문하는 경우 업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몰라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경우가 발생했지만, 이번에 ‘지방세무민원 상담관제’가 도입되면 민원인은 세무민원 상담관을 통해 지방세 전반에 걸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포천시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행정경험이 풍부한 과장 및 과장 등 모두 8명을 세무민원 상담관으로 활동하도록 했다.

또 민원인들이 편리하도록 세정

민원실 한가운데 위치한 3번 창구를 통해 세무민원 상담관을 만날 수 있도록 했다.

이 제도는 고객감동을 위한 포천시 특수사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사업이 본 계도에 오르면 세무담당 직원이 각자 맡은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됨은 물론, 이미 시행중인 ‘공무원 집중근무시간제’도 보다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포천시청 세무공무원들로 구성된 ‘세정발전연구회’는 지난 9월 ‘세정혁신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세무민원 상담관제’는 이때 나온 연구과제를 실무에 적용시킨 사

려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 직원의 전 세목 상담요원화, 골프장 및 대기업에 대한 세무상담 매니저 제도 등 새로운 납세편의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 적극 활용

### 포천시, 장묘문화 개선과 자연보존 위해 지원

포천시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화장 및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을 적극 활용해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포천시는 친환경화 개선 및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지난 2003년 10월 19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구자에게 장려금 20만 원이 지급된다.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은 신청일 1년 이전부터 포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주민이 가족 납골시설을 설치한 경우와, 역시 신청일 1년 이전부터 포천

시에 등록돼 있는 종중·문중이 납골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규모에 따라 1백만 원에서 3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포천시는 11월 현재 화장 장려금은 353명에게 7천60만 원이, 납골시설설치 장려금은 3개소에 900만 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장려금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작성한 뒤, 화장증명서 또는 납골시설신고필증을 첨부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나 포천시청 사회복지과로 제출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가 고객감동을 위한 세무민원 상담관제를 운영한다. (사진은 포천시 세정민원실 전경)

# 전통규방문화, 生活속에서 배운다

## 포천시 농업기술센터 ‘규방문화연구회’ 조직

포천시 농업기술센터가 ‘규방문화연구회’를 조직하고 11월 16일부터 28일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천연염색과 규방공예제조 교육을 실시했다.

‘규방문화연구회’는 지난해 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던 ‘천연염색반’과 ‘규방공예반’ 교육 수료자들을 중심으로 조직됐으며, 우리 고유의 전통기술을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현대적인 감각을 결합한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치게 된다.

연구회는 앞으로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야생재료와 농림부산물 등을 이용해 천연염색 작품을 만들고, 전통의 멋과 현대적인 미를 조화시킨 바느질 창작활동 등을 벌일 예정이다.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이번 규방문화연구회 외에도 이미 ‘우리음식연구회’를 조직해 전통음식 전시회를 2차례 개최했고 ‘우리가락연구회’ 내에 민요, 탈춤, 악기

반 등을 운영해 4차례의 정기공연과 군부대·노인시설 위문공연을 펼치는 등, 소중한 우리 문화의 가치를 알리고 대중화하는 데 노력해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시 농업기술센터는 규방문화연구회를 조직하고 6회에 걸쳐 천연염색과 규방공예제조 교육을 실시했다.



포천시 군내면은 경로당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22곳의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비교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 포천시 군내면 22개 마을 경로당 순회

포천시 군내면은 11월 노인회 임원과 관내 경로당 회장 25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22곳의 마을 경로당을 순회하며 상호 비교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시찰은 각 경로당당 환경 및 운영실태를 점검, 비교함으로써 단점을 시정하고 잘 된 점은 능동적으로 상호 수용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호연 군내면 노인회장은 앞으로 이 같은 비교시찰을 정착시켜 경로당을 보다 내실화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군내면은 비교시찰에 참여한 노인회 임원과 경로당 회장들로부터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청취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식품안전관리 범시민 홍보활동

### 포천시, 안전한 식품 조리 10대 원칙 등

포천시가 식품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올 한해 홍보안내문 배포, 어린이 교육, 포스터 공모전, 설문조사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포천시는 먼저 식품특별방을 위해 ‘안전한 식품조리 10대 원칙’ 등의 내용을 담은 홍보용 안내문 4,000여 부를 제작, 관내 음식점과 급식소, 시민들에게 배포했다.

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식품안전에 관한 포스터 공모전을 실시하고, 초등학교와 어린이집을 방문해

하루 여덟 번씩 삼십 초 동안 손을 씻자는 ‘1·8·3·0 손 씻기 교육’을 실시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다수인구집약시설 90개소에 대해 식품안전관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칼, 도마 등 주방용품의 위생적인 관리를 위한 ‘적·청·백 삼색 분류 관리방법’을 적극 홍보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에도 선진화된 식품위생관리 정착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저수조에 차량 추락 2명 사망

11월27일 오후 8시40분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 수로공사 현장의 저수조에 이모씨(51)의 코란도 승용차가 추락해 운전자 이씨와 조수석 들로부터 각종 애로 및 건의사항들을 청취했다.

목격자 위서는 “갑자기 밖에서 ‘퐁당’ 하는 소리가 들려 나와보니 승용차가 저수조에 빠져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공사현장 근로자인 이씨와 박씨의 음주 여부 등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